

공간과 Bildung스roman - 움직이는 『올리버 트위스트』 -

함유진*

I. 서론

Bildungsroman(Bildungsroman)이란 독일어로 교양, 형성이라는 뜻의 Bildung(Bildung)과 소설이라는 뜻의 Roman(Roman)의 합성어로, “주인공이 도덕적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소설”(Merriam-Webster, n.d.)을 뜻한다.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 역시 플롯의 측면에서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 구빈원에서 태어난 올리버는 그를 학대하는 구빈원의 사람들과 장의사로부터 도망쳐 런던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만난 이들의 도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교육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Bildung스roman적 플롯 전개뿐만 아니라 올리버 트위스트의 부제목, ‘교구 소년의 성장’(The Parish Boy’s Progress) 역시 소설의 핵심적인 플롯이

*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과정 재학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임을 드러낸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배경은 런던의 산업혁명 시기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근대 시기였다. 모레티(Moretti, 2000, 5)는 근대성의 상징적인 형식으로 발등스로만을 제시하며, 젊음을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봤다. 근대 시기에는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이 등장했고, 도제 제도가 무너지며 노동의 방식 역시 변화했다. 사회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완수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 혼돈의 시기에 질서와 통일성을 주는 문화적 형식으로 발등스로만이 나타났다. 발등스로만은 일반적으로 한 청년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춰 서사를 진행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규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사회화는 일치하며, 어긋나는 개념으로 보였던 개인과 사회는 화해할 수 있게 된다. 발등스로만이 젊음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젊음은 언젠가 끝이 난다”(Moretti, 2000, 16)는 시간적 원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화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 트위스트』 역시 한 명의 어린 주인공을 내세워 그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한다.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베일에 싸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독자들은 올리버의 모든 성장 과정에 함께 한다. 이 과정에서 올리버는 도덕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구빈원에서의 올리버가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한 것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만을 고려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는 로즈의 고통에 슬퍼하고 자신을 괴롭게 했던 페이진(Fagin)의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듯 올리버 역시 한 개인으로 태어나 사회와의 화해를 이룩하는 발등스로만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케이트 발드리지(Cates Baldrige)는 『올리버 트위스트』는 발등스로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리버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올리버의 출생의 비밀에서 볼 수 있듯 유전적으로 도덕성

을 갖춘, “도덕적으로 면역된”(Baldrige, 1993, 185) 인물로서 그의 가치관은 서사의 진행 내내 그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기 때문이다. 출신에서 비롯된 본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올리버의 인격은 가족과의 외모적 유사성과 같이 외적인 요소로만 표현되었다(Baldrige, 1993, 187). 이로 인해 올리버의 선한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

반면, 스테비치(Stević, 2014)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빌둥스로만의 범주에 포함하며 주인공과 후원자의 관계를 통해 도덕성과 주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는 개인이 대두하는 시기였다. 개인의 개념이 발달하며 사회적인 문제 역시 개인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Guy, 1996, 81).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본성을 활용해 도덕성을 이룩해야 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충분히 발휘해낼 수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졌다(Stević, 2020, 38). 반면 올리버는 참혹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라운로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브라운로우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올리버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며 브라운로우의 신뢰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올리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올리버는 성장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 과정에서 온전한 주체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올리버가 본성이라는 이미 정해진 요소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선한 부모로부터 얻은 선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올리버는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그가 태어났던, 가난한 이들을 향한 편견으로 가득 찬 구빈원이나 정체성을 확보할 고정적인 장소를 갖지 못한 런던의 거리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닫혀 있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중산층의 가정으로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올리버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리버는 그의 뿌리를 발견해

내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올리버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공간 속에 위치되며 도덕적인 개인이자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올리버는 끊임없이 다른 공간에 의해 침범당한다. 브라운로우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가지며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이내 곧바로 사이크스의 손에 의해 다시 런던의 거리로 끌려가며 무너진다. 안전한 듯 보였던 중산층의 가정은 거리의 침범을 쉽게 허용하고, 한 장소를 압도했던 런던의 장소적 힘 역시 올리버가 도둑질하려고 했다가 상처를 입고 도움을 청하고자 도착한 곳이 바로 자신이 침입하려고 했던 그 집이자 선한 마음씨를 가진 로즈의 집이었다는 우연을 통해 다시 약화된다. 이는 올리버를 주인공으로 하며 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에 올리버 외의 인물들의 서사가 개입되며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형식으로도 표현된다. 올리버를 둘러싼 두 공간의 영향력은 이렇게 불안정한 권력 싸움을 한다. 그리고 빌둥스로만에서 개인과 사회의 화해는 젊음이 끝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서 완료되는데 올리버는 소설의 결말에서도 아직 어린 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로 인해 올리버라는 개인과 사회의 화해는 완결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올리버의 완성되지 않은 젊음은 모레티의 주장처럼 빌둥스로만을 시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빌둥스로만의 주인공들은 필연적으로 이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인공들은 집에서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으며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Howe, 1966, 1). 또한, 서구의 형이상학의 전통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왔던 공간이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면서 공간을 성장과 결부시킬 수 있게 된다. 대도시의 삶에 방식에 유명한 저술을 남긴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공간(space)이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공간 역시 사회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Schroer, 2006). 이를 통해 올리버가 이동하는 도시와 교외의 공간은 각각 특정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나아가 공간이 사회적인 양

상을 다룬다면 이에 인간적인 의미를 추가한 장소 개념은 한 개인의 내면세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지리학자 이푸 투안(Tuan, 1977)은 공간과 장소(place)의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며 두 개념 모두 지리적인 위치이기는 하지만 장소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며, 개방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공간을 이동하던 한 개인이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곳을 장소로 차별화할 때, 그 개인의 내면과 그가 동일시하는 사회의 가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 사회적 가치의 합일을 목표로 삼는 발동스로만에서 주인공이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결국 어떤 곳을 장소로 규정하고 정주하게 되는지를 통해 발동스로만의 성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동스로만을 공간 및 장소 개념을 통해 정의하고, 올리버가 이동하는 공간들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도시의 균중

산업혁명기 런던은 그들이 이룩한 발전과 성취에 대한 만족,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도시였다. 미셸 드 세르토(de Certeau, 2011, 95)에 따르면, 유토피아적이고 도시적인 담론에서 도시는 합리적인 조직이 그들의 공간을 생산하고, 전통적인 시스템을 과학적 시스템이 대체하며, 과거 여러 개인과 조직에 분산 되어있던 힘이 도시라는 보편적이고 익명적인 주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주체를 앞세운 도시는 합리성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것들,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혁명기의 런던은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런던은 경제의 중심지이자 화려한 문화의 수도로 거듭났으나, 이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공장 매연으로 인한 안개와 같은 환경오염, 지나치

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주거 문제와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도시 전체를 휩쓸었다. 이러한 발전의 문제는 군중에게 부도덕의 굴레를 덧씌우며 형상화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Engels, 1943)는 1844년 런던의 노동자 실태에 관한 책을 쓰며,

손닿을 곳에 열린 도시가 있다는 어떤 힌트도 만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끝의 시작에 도착하지 않고서 몇 시간을 헤맬지도 모르는 런던이라는 도시는 정말 이상한 것이다. 약 250만 명의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이 엄청난 중앙집권화 현상은 이 250만 명의 힘을 100배 증가시켰으며, 런던을 세계의 상업적 수도로 만들었다. ... 어떤 사람은 이 런던 사람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의 문명의 경이를 지나가느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가장 좋은 자질을 희생하기를 강요받아왔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지도 모른다. ... 서로 부대끼는 사람들은 공통분모는 하나도 없고, 서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들 간의 유일한 동의는 바로 군중의 다른 방향의 흐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도로의 정해진 방향을 따라 걷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 눈짓으로 타인을 존경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고 서술했다. 산업혁명기의 런던의 모습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그 도로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규칙과 무관심으로 드러난다. 인구의 집중이 런던을 상업 중심지로 만든 것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런던 사람들은 본성의 가장 좋은 부분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을 상실했다. 나아가, 런던의 도로는 문명이 일궈낸 작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Baudelaire)의 산책자(flâneur)의 개념을 통해 군중을 분석한 벤야민(Benjamin, 2006, 322)은 엥겔스의 이러한 서술에서 엥겔스의 실망과 도덕적인 톤을 읽어낸다. 런던의 군중은 기존의 사회에서의 관습인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이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엥겔스가 재현하는 군중의 서술에서는 군중에서 느껴지는 위협과

그들의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다고 평가한다(Benjamin, 2006, 325-326). 이렇듯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군중은 억압되고 부정되면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본 모습으로부터 왜곡되어 위협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묘사된다.

『올리버 트위스트』¹⁾에서 군중의 모습은 빌 사이크스(Bill Sikes)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인 제이콥의 섬(Jacob's Island)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이콥의 섬은 상대적으로 발전했으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런던의 서쪽과 북쪽이 아니라 동남쪽에 존재한다. 런던의 서북쪽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곳이었다면, 동남쪽은 그 반대의 장소였다. 특히 제이콥의 섬은 납 공장(Lead Mill)에서 방출된 오수가 주변에 고여 있어 “어리석은 도랑”(Folly Ditch)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417), 과거에는 번성했으나 이제는 창고는 텅 비었고 공장은 연기를 내뿜지 않는 곳, 즉 산업혁명 이후 버려져 황폐해진 곳을 대변한다(418). 더욱이 이곳은 “런던에서 숨겨져 있던 많은 지역 중 제일 더럽고, 제일 이상하고 기이한 곳”(416)으로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은 “뻘뻘하고 좁고, 진흙투성이인 미로를 뚫고 들어가야만 하며”(has to penetrate through a maze of close, narrow, and muddy streets)(416)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의 공기는 먼지와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이크스는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 자신이 맞이하게 될 살인에 대한 형벌에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도시 전체가 그를 저주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을 쏟아낸 것처럼”(425) 좁은 골목을 가득히 메운 도시의 사람들에게 저지당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소리가 그 외침을 받아들였고 수백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사다리를, 누군가는 쇠파스를 달라고 외쳤

1) Dickens, C. (2003). Oliver Twist. London: Penguin Classic. 이후 디킨스의 문헌 인용은 (쪽수)로만 표기.

다. 누군가는 그들을 찾기 위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달렸다가, 다시 돌아와 포효했다. ... 그리고 모두가 성난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 밭처럼 아래의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고, 때때로 하나의 큰 포효로 합쳐졌다.

“밀물이”, 살인자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가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내가 올라오니 밀물이 들어왔구나.”

The nearest voices took up the cry, and hundreds echoed it. Some called for ladders, some for sledge-hammers; some ran with torches to and fro as if to seek them, and still came back and roared again ... and all waved to and fro, in the darkness beneath, like a field of corn moved by an angry wind: and joined from time to time in one loud furious roar.

'The tide,' cried the murderer, as he staggered back into the room, and shut the faces out, 'the tide was in as I came up. (423)

도시의 사람들은 각자 사이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찾거나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를 쏘다닌다. 하지만 이는 이내 특정한 누군가를 구분해낼 수 없는 어둠 속의 옥수수 밭으로 묘사되며 또한 사이크스에게 있어서 이들은 자신이 있는 건물로 들어닥치는 밀물이다. 여기서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사이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건물로 몰려든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화난 얼굴로 건물에 접근하려 발버둥치는 강한 흐름(in a strong struggling current of angry face)(425)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중은 개인에게 이러한 감정뿐만 아니라 더 없는 무력감을 남긴다. 도시의 군중을 보고 자신의 탈출이 실패할 것임을 짐작한 사이크스는 “이내 군중의 흥포함 그리고 탈출할 수 없다는 것에 철저히 압도되어 주저앉는다”(The man had shrunk down, thoroughly quelled by the ferocity of the crowd, and the impossibility of escape)(426). 군중의 힘에 의해 사이크스는 더 이상 이름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남자라는 일반 명사로 호명되며 힘을 잃는다.

나아가, 페이지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도 군중의 모습이 드러난다.

법원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사람의 얼굴들로 포장되어 있었다. 꼬치꼬치

캐뎀은 열렬한 눈들이 모든 공간에서 나타났다; 피고석 바로 뒤의 난간부터, 방청석의 제일 작은 코너의 제일 얇은 각도에서까지도. 모든 눈은 한 남자-유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앞과 뒤, 위, 아래, 오른쪽과 왼쪽까지 - 그는 빛나는 눈으로 환하게 빛나는 하늘에 둘러싸여 서있는 것처럼 보였다.

The court was paved from floor to roof with human faces. Inquisitive and eager eyes peered from every inch of space; from the rail before the dock, away into the sharpest angle of the smallest corner in the galleries, all looks were fixed upon one man - the jew. Before him and behind, above, below, on the right and on the left - he seemed to stand surrounded by a firmament all bright with beaming eyes. (441)

앞서 사이크스를 제압하던 제이콥의 섬의 군중과 유사하게 페이지의 재판이 이루어질 법원의 군중도 이 장소를 뻣뻣하게 채우고 있다. 이들은 이전의 묘사처럼 개개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페이지의 최후를 보겠다는 열렬한 의지로 빛나는 시선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피고석의 바로 앞 난간부터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워 보이는 얇고 작은 방청석의 코너까지 차지하고 있다. 피고석으로 가기 위해 방청석으로 걸어 나가며 페이지는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얼굴들을 바라본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단 하나의 공감도 읽어내지 못한다. 이들의 시선에는 페이지가 분명 유죄일 거라는 사실에 흥미를 보이며 이웃과 수군대는 사람들의 얼굴이다(441). 이들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선으로, 수군거림으로, 감정만이 드러나는 얼굴로 드러난다.

마침내 페이지가 유죄를 선고받자, 빌딩은 연달아 울려 퍼지는 거대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찬다. 이는 낮고 커다란 신음 소리로 메아리치고 분노한 천둥처럼 부풀어 오르며 힘을 얻는다(443). 이 소음은 페이지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겠다는 물음에 점차 사그라진다. 조용해진 참관인들 너머로 페이지는 항변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저 자신은 노인이었다고 두 번 중얼거리고 이내 그 소리는 속삭임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변한다(443). 군중의 열렬한 시선과 고함

소리는 페이지를 점점 축소 시켜서 이내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이크스와 페이지에 대한 논의에서 군중은 어떤 개인의 행동과 발화를 제한하고 이들의 위치를 행동이나 발화가 가능한 주체의 입장에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힘을 가졌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묘사는 군중을 어떤 인간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다. 분노라는 감정, 인간의 언어가 아닌 고향 소리와 같은 소음,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야수적인 시선과 같이 파편적인 것이다. 나아가 군중은 개개인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이지만 개인으로 복원해낼 수는 없으며, 이들은 항상 뻘뻘하게 모여서 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가한다. 거리를 가득 채운 제이콥의 섬의 군중은 건물 위에 올라서 있는 밀물처럼 몰려들어 사이크스의 도망을 저지했으며, 복도와 참관석을 가득 채운 군중은 시선과 소음으로 페이지를 침묵하게 했다.

디킨스의 묘사는 거리를 둔 시선으로 군중의 모습에 도덕적인 평가를 내렸던 앵겔스의 것과는 다르다. 디킨스의 소설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를 이해와 공감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다(Barloon, 1999). 그럼에도 『올리버 트위스트』의 군중은 “거주자들의 거대한 덩어리”(A great mass of its inhabitants) (416)로 명명되며, 벤야민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주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귀결된다. 군중의 비인간화는 이성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룩한 진보적인 도시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각종 쓰레기와 문제로부터 결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군중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읽어낼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들의 분노를 무질서한 분노로 볼 수만은 없다. 난시를 죽인 사이크스와 아이들을 착취해온 페이지에게 속죄와 처벌을 요구하는 도덕성이 존재하며, 페이지와 사이크스에게 가한 힘은 비인간 존재의 위협이 아니라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가한 힘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인간 존재들에게서 주체성을 읽어낼 수 없었던 이유는 행위 작용(agency)은 인간의 특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주체가 이성이라는 고전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Braidotti, 2019, 77). 이성이 자신이 만들어낸 쓰레기로부터 적극적으로 결별을 선포하는 세계에서 이성 바깥에 존재하는 비인간들의 주체성은 드러나지 못한다.

이렇듯 군중은 다른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들의 힘은 한 개인에게 소음, 감정, 시선을 통해 그들의 자유와 목소리를 빼앗고 침묵시킨다. 대상에게 가해지는 힘은 이처럼 파괴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좁고 미로처럼 굽이쳐 뻗어지는 도로와 뺨뺨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 그곳에 달린 창문 등 공간 속의 지형물을 이용해 그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나아가 이들은 산업혁명의 런던이 만들어내는 군중이므로 런던이라는 공간에 귀속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제이콥의 섬에서부터 시작해 페이지의 집이 있는 이스트엔드의 골목 등 런던에 도착한 올리버가 머무르게 될 곳들에 존재한다. 이들의 존재가 도시라는 공간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을 떠도는 발전의 부산물을 떠안은 공기, 같은 길을 걷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III. 도시를 걷는 올리버 트위스트

『올리버 트위스트』의 런던은 지금까지 많은 비평가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슈바르츠바흐(Schwarzbach, 2014)는 디킨스가 실제 지명과 도로명을 소설의 묘사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런던과 소설 속의 더럽고 끔찍한 런던은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이 된다고 비판한다. 소설의 묘사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는 무너지고 런던은 “죽음을 그리는 짐승 같은 도시의 악몽 같은 버전”(a nightmare version of a bestial city of death)(Schwarzbach, 2014, 47)이 된다. 비평가들은 런던에서 드러나는 분리의 양상을 지적한다. 이 끔찍한 도시는 웨스트엔드(Westend)나 나중에 올리버가 향하게 되는 처트시(Chertsy)와 같이 런던의 다른 지역과는 분리 되어있으며(Schwarzbach, 2014, 48), 올리버 역시

도시를 인식의 대상으로 만드는 디킨스의 서술 기법으로 인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도시 환경에 대해 주체로서 거리를 유지한다(Craig, 1987, 17, 19). 분리의 메커니즘에서 도시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도시는 다른 가능성을 지니지 못한, 주체의 인식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크레이그(Craig, 1981, 22)는 스미스필드 시장(Smithfield market)을 지나는 올리버의 인식이 군중의 영향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포착하며 “올리버가 아니라 스미스필드가 이 장면의 주체이다”(Smithfield, not Oliver, is the subject of this scene)라고 말한다. 이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도시를 긍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도시에는 그의 주체성을 해체 시킬 파괴적인 힘을 가진 군중이라는 주체들이 도사리고 있다.

구빈원에서 벗어나 런던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올리버는 도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된다. 올리버는 자신의 부조리한 처우에 대해 인식하고 구빈원과 장의사의 집에서 도망쳐 며칠을 걸어 런던 인근의 마을에 도착한다. 올리버는 그곳에서 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차에 탄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한다. 그 안의 사람들은 올리버가 반페니(halfpenny)에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나 내기를 하고, 올리버는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피로와 발의 고통으로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 이에 마차의 사람들은 올리버가 “게으르고 어린 개라서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59)고 말한다. 이는 마차를 탈 정도로 재력이 있는 중산층들이 구걸을 하는 하층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준다. 하층민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중산층들의 시선에 의해 그들과 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버는 자신을 위해 이들에게 구걸하는 선택을 한다. 런던에 도착하기 전까지 올리버는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올리버는 존 도킨스(John Dawkins)를 만나 런던의 이스트엔드로 향하며 도시에 발을 들이게 된다.

존 도킨스와 함께 올리버는 좁고 미로 같은 런던의 도로를 걸으며 페이지의 집으로 향한다. 그가 걷는 도로는 좁고 진흙투성이였으며, 공기는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올리버는 도킨스를 놓치지 않으려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올리버는 그곳을 걸어가며 펄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쓰레기에서 뒹굴고 있는 것도 보게 된다. 몇몇 현관에서는 아주 보기 흉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게 된다(63). 올리버가 보고 경험한 것은 산업혁명기 런던의 어두운 이면이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 도로를 돌볼 수 없는 하층민들의 거주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도시로 몰려든 이민자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올리버가 접하게 되는 런던은 웨스트엔드의 깨끗하게 가꾸어진 유토피아적인 런던이 아니라,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온갖 쓰레기를 한데 모아 놓은 그 이면의 런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런던에 도착한 올리버는 그의 일행이 신사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고 도망치며 군중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도로를 달리는 올리버는 “도둑을 멈춰 세워!”(77)라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올리버를 뒤쫓고 군중은 골목을 돌 때마다 모여들어 그의 앞길을 방해한다. 군중의 소리에 쫓겨 거리를 달리는 올리버는 시선에는 분노와 공포가 가득하고, 이마에는 굵은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불쌍한 아이지만(77), 길 위의 군중은 올리버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올리버가 마침내 멈춰 섰을 때, 군중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다. “저리 비켜!”, “잠깐 숨 쉴 틈 좀 주자!”, “아니야, 그 애는 그럴 가치가 없어.”라는 군중의 말들이 올리버를 둘러싸고, 올리버가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둘러싼 군중을 둘러보고 있을 때, 노신사가 끌려와 원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77). 도시의 군중은 올리버를 도둑으로 보고 그를 잡으려고 몰려들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군중의 소리로 인해 좌절되고, 노신사 브라운로우 역시 그들의 힘에 의해 휩쓸리게 된다. 도시의 군중은 길 위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들보다 신분이 높은 브라운로우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브라운로우 역시 이들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나아가 올리버의 행동은 계속해서 도시의 군중에게 영향을 받는다. 올리

버는 브라운로우의 부탁으로 책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도킨스와 길을 걸었을 때와는 다르게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낸시와 빌 사이크스를 마주치며 방해받는다. 공포에 질린 올리버는 낸시와 사이크스는 자신과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군중은 믿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올리버가 갖고 있는 비싼 책을 훔친 것으로 보고 그를 꾸짖는다. 올리버는 더 이상 어떤 도움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사이크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올리버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병으로 인해 약해진 그의 몸, 사이크스가 주는 공포심이기도 했지만, “행인들의 의견에 제압”(overpowered by the conviction of the bystanders)(123)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브라운로우의 관계에서 그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면, 도시의 군중 앞에서 그의 말은 형태를 잃게 되며 이내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다. 사이크스에게 다시 런던의 골목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올리버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번의 울음소리”(the few cries … wholly unintelligible)(123)을 낸다. 올리버는 자기 일에 개입하는 군중의 힘 때문에 주체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른 힘에 이끌리는 무력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의 발화는 언어로 파악될 수 없는 울음소리로 잦아든다.

이처럼 올리버는 도시에 들어서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장의사의 집을 떠나 런던으로 향할 때 만났던 친구 잭에게 목적지는 알 수 없으나 더 나은 곳으로 떠난다고 했던 올리버는 이제 목적지도 처음의 의도도 모두 잃어버린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올리버는 도시에 들어서며 그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선택에 구속되고 군중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올리버가 살아가는 도시는 좁고 뻣뻣한 미로 같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도시에서 올리버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축소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움직임에도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거리와 그곳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촘촘한 매트릭스는 사이크스에게 작용됐던 흐름의 힘과 같이 올리버를 포위해서 선택지를 지워가며 작용하는 힘과 같다.

그 후 올리버는 사이크스와 이스트엔드에서 서쪽의 켄싱턴(Kensington)으

로 런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여정에서 스미스 필드 시장을 지나간다. 발목을 덮는 오물과 진흙이 걸음을 느려지게 하고 공기에는 소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굴뚝에서 내려앉은 안개가 뒤섞여 있다. 그곳에는 시골에서 온 남자, 정육점 주인, 운전 기사, 도둑이나 방랑자들 같은 하층민이 모여서 뻣뻣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과 그들이 데려온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끔찍하고 조화롭지 않은 소음들”(the hideous and discordant din)(171)은 감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올리버는 이 광경과 소리들에 몹시 놀라 사이크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된다.

이처럼 도시는 좁은 골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며 다른 행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이 속에서 올리버는 군중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는 자유를 빼앗기고 침묵하는 등 주체가 아닌 객체로 묘사된다. 도시에서의 경험은 내면세계를 탐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올리버를 침묵시킨다. 하지만 『올리버 트위스트』가 갖고 있는 빌둥스로만의 성격은 이렇게 무너진 올리버의 주체성이 결국 회복되고 내면의 성숙을 이룰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군중의 힘은 공간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버의 주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올리버가 도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리버는 성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후 올리버는 로즈에게 구조된 뒤 메일리(Maylie) 가족과 함께 런던의 교외로 이동한다.

IV. 정원과 올리버 트위스트

투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험과 장소의 관계를 중요히 여겼던 랠프(Relph, 1976, 45)는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s)에 대해 논하며 “특히 내 부인 혹은 외부인으로서의 경험이든지 개인과 집단이 그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the identity that a person or group has with that place, in particular whether they are experiencing it as an insider or as an outsider)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소의 정체성은 내부성(insideness)과 외부성(outsideness)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성은 “그 장소에 속하고 그 장소와 동일감을 가지며, 그 장소와 깊게 연관될수록 그 장소의 정체성 역시 강해지는 것”(Relph, 1976, 49)이다. 반면 외부성은 개인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이자 혼돈이다. 이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개인의 정체성 역시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적인 공간이라고 선언하는 곳은 그가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동일시할 수 있는, 정체성이 표현되는 곳이다. 반면 외부라고 하는 곳은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의 장소이다.

브라운로우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 머물게 된 올리버는 거리의 소음과 소란이 없는 조용하고 정돈된 천국과도 같은 브라운로우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106). 올리버는 “저를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 제가 왔던 그 끔찍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108)라고 말하며 직접 그의 내부적인 장소를 지정하고 브라운로우의 집과 런던의 거리를 분리해낸다.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을 데려가려는 낸시와 사이크스에게 올리버는 저항하며 “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122)고 말한다. 이 발화는 낸시와 사이크스가 그의 일행인 것을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속하는 공간인 런던의 뒷골목은 자신의 외부 공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브라운로우의 집에서의 경험은 올리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올리버는 자신의 정체성을 브라운로우의 집에서 찾으며 조용하고 편안한 중산층의 집을 자신의 친밀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장소로 변모시킨다.

이처럼 올리버가 자신을 일치시키는 곳은 브라운로우의 집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도시의 거리와 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버는 그의 주체성을 해체하는 도시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곳을 적극적으로 그가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로 정의하며 올리버는 그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 들어선 듯 보였지만, 이는 낸시와 사이크스의 손에 이끌려 다시 거리로 돌아가며 와해된다. 따라서 올리버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리는 올리버가 본인을 일치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분리시킨 공간이다. 올리버가 계속 외부의 공간인 런던의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는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그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현재 위치를 내부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리버가 다시 정체성의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에는 올리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한다. 배수로에 버려졌던 올리버는 이내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는다. 올리버는 그러다가 그가 갈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곳에 집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자비를 베풀기를 기대하며 그곳으로 향한다(228). 하지만 그곳은 올리버가 침입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집이었고, 올리버는 상처의 아픔도 모두 잊고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만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버는 간신히 설 수 있을 뿐인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문을 두드린다. 이 집은 런던이 아니라 런던의 남서부에 있는 처트시라는 마을이었다. 장소의 이동을 통해 올리버는 그를 지배하던 군중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미약하게나마 본인을 위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올리버는 메일리 가족과 함께 먼 교외에 있는 작은 집(cottage)으로 이동하게 된다.

누가 허약해보이는 소년이 아늑한 공기, 그리고 내지의 마을의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에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평화와 부드러운 평온을 묘사할 수 있을까! 또 그 누가 어떻게 뻑뻑하고 시끄러운 곳의 고통에 찌든 거주자의 마음에 평화와 고요의 장면들이 내려앉고, 이들의 지친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신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까?

Who can describe the pleasure and delight, the peace of mind and soft tranquility, which the sickly boy felt in the balmy air, and among green hills and rich woods of an inland village! Who can tell how scenes of peace and quietude sink into the minds of pain-worn dwellers in close and noisy places, and carry their own freshness deep into their jaded hearts? (261)

교외의 마을과 런던의 거리는 철저한 대비를 이룬다. 런던의 거리는 그곳의 거주자들을 고통에 찌들게 하고 그곳의 비좁음과 소음으로부터 마음을 지치게 한다. 반면 교외의 마을은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공기는 아늑하고 평화로우며 조용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올리버가 이질감을 느끼는 런던은 혼돈이자 무질서였다면, 교외에서는 자연적 질서의 화합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힌다(Duffy, 1968). 그리고 소음으로부터 거리가 먼 교외가 선사하는 느낌은 마치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262). 뿐만 아니라 이곳은 브라운로우의 집처럼 도시의 힘으로부터 일시적인 도피처가 되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런던의 좁고 뻣뻣한 도로 한 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푸른 언덕과 풍성한 숲 가운데 위치한다. 즉, 런던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된 곳으로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브라운로우와 교외의 마을은 천국과 비유된 묘사를 통해 비슷한 곳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생각을 정화해주며, 오랜 원함과 증오를 씻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사색적이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도 엄숙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262). 일부러 시도하지 않아도 정원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의미 있게 바꾼다. 이런 경험은 장소에 대해 존재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을 갖게 되는 경험과 유사하다. 존재적 내부성은 “그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그 장소의 개념의 근원과 일치하는 완성된 정체성”(Relph, 1976, 55)으로 특정된다. 즉, 이 경험을 통해서 올리버는 교외라는 장소가 구성된 근원과 일치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올리버는 이곳에서 새로운 공간의 영향을 통해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게 되며, 주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a new existence)(262)로 거듭난다.

그렇다면 올리버가 도착한 새로운 공간은 장미와 꽃이 피는 덩굴 식물이 벽에서 자라고, 나무 몸통에는 아이비 덩굴이 칭칭 감겨 있으며, 정원의 꽃들이 공기를 향긋한 냄새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정원이 있는 곳이다. 정원의 식물

들은 야생의 식물들과는 다르다. 무질서하게 돌아다니서 집 전체를 뒤덮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에 의해 보기 좋게 가꾸진 식물들이다. 또한 올리버는 이곳의 정원을 거닐며(wander) 사색하고,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배회하다(roam), 야생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려 저 멀리 넓게 펼쳐진 울타리를 살피기도 한다(262-263). 이곳에서 올리버는 런던의 좁고 미로 같으며 사람들로 뺨뺨하게 가득 찬 도로에서 인파에 휩쓸리듯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누빈다. 올리버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에 따라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올리버는 그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그의 마음대로 이용한다. 올리버가 교외에서 했던 일 중에는 정원을 가꾸는 것도 있었다(264). 즉, 그는 정원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의도에 따라 가꾸어서 인간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원에서는 한 개인은 그 어떤 것에도 개입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의도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존재가 된다. 런던이라는 도시가 만드는 주체의 힘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올리버가 아니라 주체성을 발휘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올리버의 주체성은 그가 주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며 완성된다. 하지만 올리버가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올리버는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테이블을 장식하고, 자신을 구해준 로즈 메일리의 새장을 꾸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정원에서 구해온 꽃들을 사용한다. 로즈는 올리버를 칭찬해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올리버에게는 그녀의 미소가 충분한 보상이 된다(263-264). 이처럼 자신을 도와주었던 메일리 집안의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올리버의 주된 동기이다. 메일리 집안사람들이 올리버에게 보여주는 너그러움과 올리버가 그들에게 보이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올리버는 메일리 집안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가정적으로 변하

게 된다”(completely domesticate)(264).

“가정적으로 변하다”(domesticate)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삶에 익숙해지게 되는”(Merriam-Webster, n.d.)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올리버의 위치가 중산층의 가정 안에 고정되었음을 시사한다. 올리버의 위치는 더 이상 도시의 거리 위에 있지 않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가정의 삶에 적응된 중산층의 가정 속의 아이이며 올리버의 공간 이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사전의 두 번째 의미인 “야생이나 자연 상태의 식물이나 동물이 인간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다”(Merriam-Webster, n.d.)를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야생과도 같은 거리의 환경에서 자라난 올리버가 중산층 가정에서 받은 가르침을 통해 드디어 사회의 범주 안에 귀속되었음을 뜻한다. 메일리 가문의 사람들은 올리버에게 조건 없는 선의를 베풀어 주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올리버가 하는 행동들을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다. 이러한 메일리 집안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졌다는 것은 올리버 역시 그들과 같이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회적 덕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이제 올리버는 스스로 성경과 책을 읽으며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263, 281). 런던에서 브라운로우의 책 심부름을 맡았을 때 그림웁(Grimwig)은 올리버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제 교외에서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에게 신뢰를 얻어 해리(Harry Maylie)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듯 올리버는 심성이 바르고 마음씨가 착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해서 스스로를 가꾸며 타인의 신뢰를 획득한, 완벽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올리버의 정체성은 교외의 정원이 표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드러난다. 런던의 교외에 거주하며 먼 시골에 별장을 두고 오갈 수 있는 중산층이며, 이들의 배려와 도덕성,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학습된 가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올리버는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거닐고 산책하며 이용하는 주체성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올리버의 정체성은 공간을 이동해 그곳

을 장소로 규정하며 완전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올리버의 이동은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이동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고 올리버의 성장을 불안함으로 몰아넣는다.

V. 공간의 불안정함

이와 같이 올리버는 도시에서 그의 주체성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지만, 도시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며 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올리버의 성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런던의 인물들이 계속 올리버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어느 저녁 책을 읽다가 깜빡 잠들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데, 일순간 장면이 전환되며 달콤했던 공기가 정체되고 페이지인의 집에 있는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 올리버는 페이지인이 올리버의 이복 형제인 멍크스(Monks)와 함께 익숙한 모퉁이에서 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282-283). 이 일은 올리버의 꿈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는 페이지인이 상징하는 런던의 거리가 교외의 정원을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서 이는 올리버의 유산을 뺏으려 하는 멍크스가 올리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페이지인과의 거래를 통해 올리버를 페이지인에게 보내기로 했음이 드러나며 구체화된다(334-335). 이처럼 두 공간은 올리버를 사이에 두고 권력 싸움을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올리버의 이동이 거리에서 우연히 사이크스를 마주친 것이나 로즈의 집을 우연히 발견한 것 등 모두 우연을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파악할 수 없고 올리버를 다시 빼앗길 위험이 존재하는 위태로운 싸움이다.

이 불안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두 공간 사이에 균형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공간의 힘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런던의 이스트엔드를 대표하는 인물인 빌 사이크스와 페이지인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소설의

도덕적 측면에서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설을 구성하는 두 공간의 다른 한 축인 도시의 힘에도 영향을 끼친다. 마침내 페이지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페이지의 형이 집행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모여든다. 이 군중은 여전히 어딘가로 밀려들고, 서로 싸우고 농담을 하며 소음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작용하는 한 가운데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악한 물건들의 무리 - 검은 발판과 대들보와 줄, 죽음의 모든 끔찍한 기구들”(450), 바로 교수대가 있다. 이처럼 이제는 주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애버린 죽음의 물건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도시의 대표인 페이지와 빌 사이크스의 죽음에는 권선징악이라는 목적이 있다. 1841년에 출간된 『올리버 트위스트』의 3판의 서문에서 디킨스는 “나는 작은 올리버를 통해서 선의 원칙이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I wished to show, in little Oliver, the principle of Good surviving through every adverse circumstance, and triumphing at last)(457)고 쓰며 그의 목표를 밝힌다. 그 결과 도시 공간은 패배한 악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며,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낙인을 얻게 된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 회피해야 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의 군중 역시 도시에 찍힌 낙인과 함께 무력화된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의 미래를 설명하는 마지막 챕터 <그리고 마지막>(And Last)에서 그려지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런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로스번(Losberne)은 런던을 떠나 처트시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몇 개월 동안 도시의 공기가 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마침내 그 도시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451). 총에 맞은 올리버를 치료해주고 올리버의 과거에 눈물을 흘리는 선량한 인물인 로스번의 이러한 결정은 런던이 지니게 된 부도덕의 낙인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페이지와 사이크스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찰스 베이츠(Charles Bates)는 사이크스의

범행에 놀라 자신의 삶을 고찰하기 시작한다. 과거를 반추한 끝에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 그는 농부와 마부의 일을 하다가 목축업자가 되어 노스햄프턴셔(Northamptonshire)에 정착한다(451-452). 멍크스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더 먼 새로운 곳, 서인도 제도로 가서 이전과 같은 악행을 반복하다가 감옥에서 사망한다(451). 런던의 악당이었던 찰스는 개과천선하여 런던을 벗어나고, 멍크스는 더 먼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똑같은 과오를 반복한다. 이러한 이동은 소설 속에서 런던이 더 이상 삶의 장소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도시에 죽음의 이미지와 도덕적 의미를 더해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소설에서 도시는 사라졌다. 이는 올리버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공간인 런던의 집과 교외가 위협 받을 가능성 또한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올리버의 성장은 도시 공간에서 중산층의 교외 공간으로 이동하고, 교외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곳을 장소로 규정하고 정주함으로써 완료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리버의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며 그의 성장을 완료시킨다. 이러한 성장은 올리버의 가능성을 크게 축소시킨다. 군중의 힘으로 인해 올리버가 자유를 빼앗긴 것은 사실이다. 교외에서 살며 올리버가 이전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러한 면모는 올리버의 미래의 가능성을 빼앗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교외에서 머무르는 동안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며 정원의 풍경은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며 뻗어 나갔지만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평온했다(264-265). 올리버는 주체로 거듭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거나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외에서 항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며 계절의 변화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정지된 듯 보이는 일상에 고정되게 되었다.

나아가서 올리버가 이동하는 양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런던의 거리나 교외의 정원을 걸으며 그 공간이 주는 감각들을 온몸으로 수용했던 올리버는 소설의 마지막에는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는 마차에 타 있다. 올리버는

마차를 통해 이동하는 내내 사색에 잠겨 있다(429). 사색에 잠겨 있다는 것은 생각에 방해가 될 요소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올리버의 일상은 여러 자극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있다. 도시의 공간이 그에게 부여했던 톱툰한 공기의 밀도, 도시의 악취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신체 감각은 더 이상 올리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제 올리버는 공간의 이동을 거듭하며 공간이 주는 영향력에 노출되어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그는 열린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집이나 마차와 같이 닫혀 있는 공간에서 모든 자극과 가능성으로부터 유리된 채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성장은 올리버의 가능성을 없애고 그를 변화하지 않을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성장은 올리버를 온전한 주체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변화에 노출되지 않아 변하지 않을 정체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정체성의 완성이 아닌 정체성 발달의 정지로서 개인에게서 자유와 가능성을 빼앗고 한 공간에 구속하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올리버의 주체성이 결국 공간의 사물들을 착취하면서 완성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도시 공간은 독특한 주체를 생산해내며 인간 주체에 대한 가능성을 뒤집는다. 나아가 도시 공간에서 만들어진 주체인 군중은 개인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간이 인간에 귀속된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었다. 반면 교외의 정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다시 전복된다. 올리버는 정원과 도시를 분리하며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라는 공간은 한 인간의 외부이자 타자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올리버가 주체로 탄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정원 가꾸기라는, 그 공간의 사물들을 객체로 착취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이 완료됨으로써 다시 공간이 자아내는 의미를 바꿀 기회가 사라지며 다시 공간은 인간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 개인을 주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언가가 객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빌딩스스로만이라는 구조를 활용해 개인이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공간을 객체로 이용하는 데 거리낌 없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보여준다.

빌둥스로만의 장르적 구조를 통해 정당화되는 주체의 형성은 이런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는다면 올리버의 성장을 여러 경험을 통해 사회적 덕목을 교육 받고 정당한 신분을 갖게 된 사회화된 개인의 탄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읽었을 때, 올리버는 이동할 자유와 공간이 줄 변화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단조로운 인물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도시라는 공간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소멸한다. 도시 공간의 소멸은 도시 공간이 함의하고 있는 발전의 이면으로 구성된 사회와 그 공간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거부이다. 개인은 특정 사회적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는 공간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은 곧 빌둥스로만의 함의에 따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탄생을 사회의 의도와 합치하는 것으로 읽음으로써 사회화된 주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회가 용인하는 대로 정체성을 성립한 것은 그 밖에 있는 모든 것, 발전의 이면으로 생겨난 문제들과 인간과의 기존의 관계를 뒤엎는 공간의 힘,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는 앞서 논의한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변화의 결과이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논할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올리버의 성장이 지니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VI. 결론

빌둥스로만의 성장과 결부될 수 있는 빌둥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단어의 기원인 독일에서는 교육을 통한 내면적으로 성숙

한 “개인의 양상”(individual’s cultivation)(Jeffers, 2005, 35)이라는 의미가 두 드러진다. 반면, 영국에서는 개인의 내면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사회적 공간을 구성하고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친밀감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면서 사회가 나타내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어우러지며 구성되는 상호주관성이 발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제퍼스(2005, 36)는 영국의 발등스로만에서는 가정적인 환경이 극대화되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 없는 소년들을 위한 장소”(57)인 런던은 올리버의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나아가 올리버는 런던의 거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질감을 느끼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중산층의 인물들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리버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향적인 요소들은 영국만의 특이한 발등스로만 구조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발등스로만은 유럽 각지의 문화권에서 사용되어왔던 근대의 양식이지만,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혼란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던 영국의 발등스로만은 다른 형식을 지닌다(Moretti, 2000, 181). 유럽의 발등스로만은 역사적 상황을 배제해 사적인 영역을 그리며 18세기적 욕망을 재진술하거나 개인의 내면 성숙이 보장되지 않음을 드러내며 열린 결말을 맞이하거나,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가 대립하는 양상 속에서 결국 사적인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게 됐음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문학적 결과물을 낳았다. 반면, 영국의 발등스로만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서사의 복잡성을 갖추지 못해 악당들이 서사의 중심에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나 읽힐 수 있는 “동화”(Moretti, 2000, 195)처럼 보인다. 영국의 발등스로만은 안정성을 위한 규칙이 사방에 존재한다. 그로 인해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다양성 - 관심사나 아이디어, 윤리적 선택지, 또는 성적인 기호-가 문제적인 영역에서 제거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동화 같은 법률적 판단으로 바뀐다”(Moretti, 2000, 210). 따라서 영국의 발등스로만은 올리버의 성장이 중산

층의 교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두 공간을 옹고 그림의 판단에 놓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판단 속에서 산업 혁명의 이면 속에서 탄생한 주체의 모습과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는 올리버에 의해서도, 마지막에 런던이 소멸되는 서사에 의해서도 위반으로 규정되며 소설 속에서 추방된다. 이로써 영국의 빌딩스로만이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특정 공간을 장소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사회적 가치의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공간과 장소의 구분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투안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와 같은 학자들은 공간을 이동으로, 장소를 정지로 바라봤다(황진태, 2011). 특히 투안과 같은 인본주의적 지리학의 관점에서 장소는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소설 속에서 공간이 만들어내는 의미는 성장으로 인해 하나로 고정된다. 도시 공간은 부도덕의 낙인으로 인해 가능성을 상실하며 소멸되고, 교외의 정원은 유동성을 갖지 못하는 정지의 장소로 변모하고 또한 인간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된다. 장소가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면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장소가 된 그 공간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올리버의 성장을 변화와 발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렇게 해체되었던 공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사유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주체는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주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주체 이상의 가능성을 가진 어떤 개념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존재,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군중과 같은 주체에 대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기존의 인간에 대한 관념이 해체되고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여성, 바서구, 낮은 계급의 사람들, 동물, 자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바

탕으로 주체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며, 새로운 주체들은 이전의 인간 중심적 주체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이 정의되어 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Braidotti, 2019, 74). 이 글에서는 빌둥스로만의 성장을 공간이라는 요소를 통해 바라보며 그렇게 성장한 주체와 그 성장을 빚어낸 공간이 지니는 효과를 드러내고,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 내는 비인간 존재의 주체성이 어떻게 미약하게나마 공간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간과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빌둥스로만, 성장, 공간, 주체, 디킨스

[참고문헌]

- 황진태 (2011). 장소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적 이분법을 넘어서기: 하비와 매시의 논쟁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5, 55-66.
- Baldrige, C. (1993). The instabilities of inheritance in “Oliver Twist”. *Studies in the Novel*, 25(2), 184-95.
- Barloon, J. (1999). The black hole of London: rescuing Oliver Twist. *Dickens Studies Annual*, 28, 1-12.
- Benjamin, W. (2006).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 4: 1938-1940. Cambridge: Belknap Press.
- Braidotti, R. (2019). *Posthuman Knowledge*. 김재희, 송은주 옮김 (2022). 포스트휴먼 지식. 서울: 아카넷.
- Craig, D. M. (1987). The interplay of City and Self in “Oliver Twist”, “David Copperfield”, and “Great Expectations”. *Dickens studies annual*, 16, 17-38.
- De Certeau, M. (2011).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Dickens, C. (2003). *Oliver Twist*. London: Penguin Classic.
- Duffy, J. M. (1968). Another version of pastoral: Oliver Twist. *ELH*, 35(3), 403-421.
- Engels, F. (1943). *The Condition of the Working-Class in England in 1844* [eBook Edi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https://books.apple.com/kr/book/the-condition-of-the-working-class-in-england-in-1844/id510952047?l=en>
- Guy, J. M. (1996). *The Victorian Social-Problem Novel: The Market, The Individual And Communal Life*.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Howe, S. (1966). *Wilhelm Meister And His English Kinsmen*. New York: AMS Press.
- Jeffers, T. (2005). *Apprenticeship: The Bildungsroman From Goethe to Santayan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erriam-Webster. (n.d.). *Bildungsroman*. Merriam-Webster. Availabl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bildungsroman>
- Merriam-Webster. (n.d.). *Domesticate*. Merriam-Webster. Availabl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omesticate>.
- Moretti, F. (2000).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chroer, M. (2006). *Räume, Orte, Grenzen*. 정인모, 배정희 옮김 (2010). *공간, 장소, 경계*. 서울: 에코리브르.
- Schwarzbach, F. S. (2014). *Dickens and the City*. London: Bloomsbury Academic.
- Stević, A. (2014). Fatal extraction: Dickensian bildungsroman and the logic of dependency. *Dickens Studies Annual*, 45, 63-94.
- Stević, A. (2020). *Falling Short: The Bildungsroman and the Crisis of Self-Fashioning* [eBook Edition].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http://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scope=site&db=nlebk&db=nlabk&AN=2406416>
-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국문초록]

모레티(Franco Moretti)에 따르면 bildungsroman은 젊음의 끝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정의되며, 시간이 지나며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논문은 bildungsroman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이 한 공간을 장소로 차별화하며 정주할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의 공간 이동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올리버는 런던의 거리에서 중산층의 집, 교외의 정원으로 이동하며 정체성을 정립한다. 거리에서 올리버는 런던의 군중에 의해 자유를 상실하고 행동을 억압당하며 객체로 전락한다. 이렇듯 이 공간에서는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 성장을 위해서는 이동해야 한다. 브라운로우(Brownlow)의 구조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그 경험을 통해 올리버는 적극적으로 런던의 도시와 집을 분리해낸다. 올리버에게 있어서 도시가 외부의 공간이었다면, 중산층의 집과 교외의 정원은 소속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내부성을 지닌 장소가 된다. 교외로 이동한 올리버는 정원을 가꾸고 교육을 받으며 주체성을 확립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 가능성은 열려있어 교외는 도시의 인물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올리버의 성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는 도시의 주요 인물인 페이긴(Fagin)과 사이크스(Sikes)의 죽음과 도시에 부여된 부도덕함이라는 불명예를 통해 도시의 존재를 삭제하며 해결된다. 이렇게 완성된 올리버의 성장은 미래의 자유와 가능성을 잃고 정제된 정체성을 형성한다. 나이가 정원을 가꾸며 올리버가 주체성을 발전시킨 것에서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할 줄 아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을 소설에서 추방함으로써 억압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게 한다. 이 글을 통해서 bildungsroman이라는 구조를 통해 정당화되는 성장이 공간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공간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Space and the Bildungsroman
– *Oliver Twist* on the Move

Ham, Yuji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the Bildungsroman through the movement of *Oliver Twist*, the hero of *Oliver Twist* by Charles Dickens. Bildungsroman is a literary genre that describes a young hero's development into adulthood. However, Oliver finally achieves his social identity by moving from the city, London, to a garden in the suburbs. It asserts that spa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his growth. The city has a post-human subject, which is denied by the modernist vision, the crowd. It forces an individual to lose their power and voice. As Oliver steps into the city, he is under the control of the crowd. He gets confused and becomes an object. He needs to move out of the city to build an identity. After being rescued by Brownlow, he becomes a member of a middle-class family, the Maylies. He restores his identity by cultivating a garden and being educated by Rose Maylie. However, this becomes unstable as Oliver begins to be threatened by Monks and Fagin. It is resolved by removing the power of the city, and Oliver finally grows out of threats and danger. This growth does not mean Oliver's completion, but being lost in his possibilities. Also, space is reduced to a human object. Finall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ildungsroman show that the interests of society and the growth of individuals coincide with each other, raising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a society in which such subjects are accepted.

[Keywords] Bildungsroman, Subject, Space, Growth, Dickens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25일 / 논문심사일: 2022년 12월 0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2일

[저자연락처] calvis184@gmail.com

www.kci.go.kr